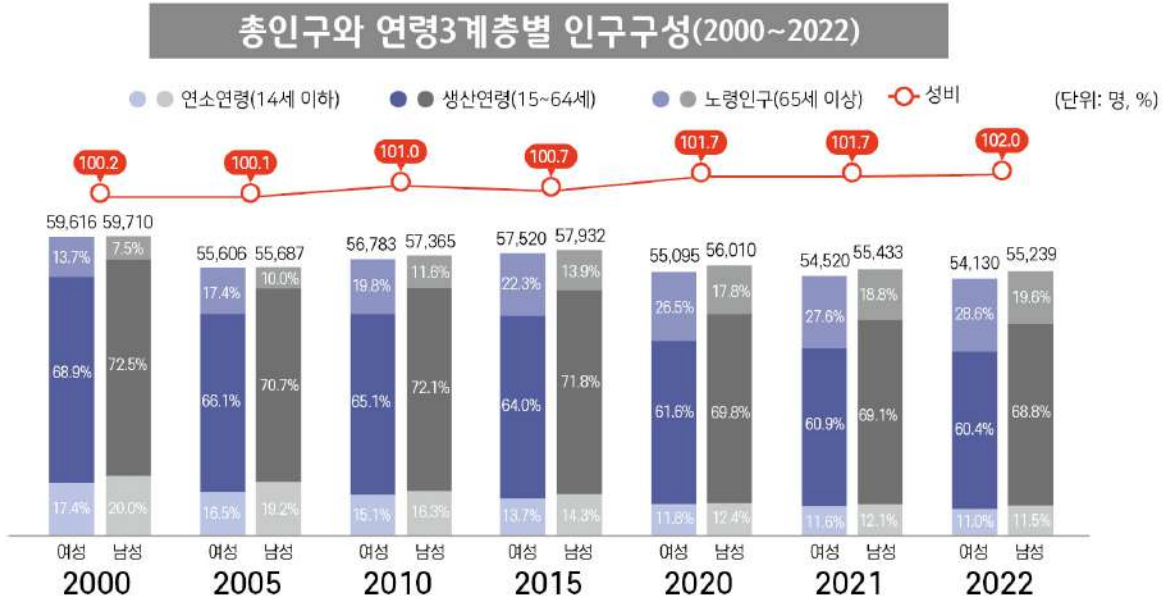


# 1. 인구 및 가족

## 인구와 가구

'0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,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함



자료 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. <표1-1>, <표1-2>



자료 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. <표 1-1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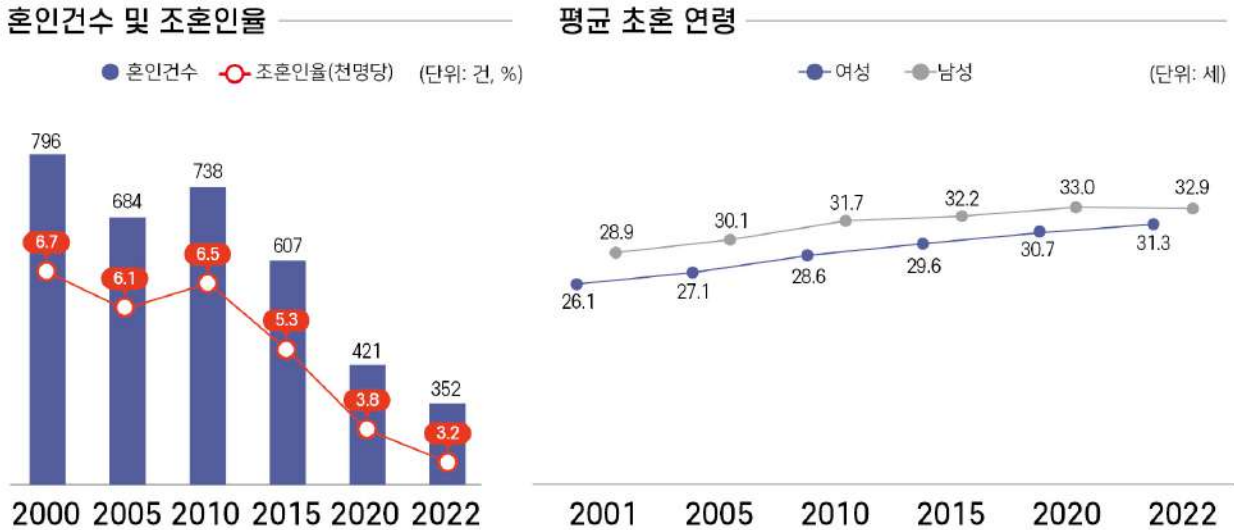
- '22년 총인구는 109,369명으로 '00년 대비 8.3% 감소했고,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 중 49.5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'22년 기준 여성인구의 28.6%, 남성인구의 19.6%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고, '00년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여성 14.9%p, 남성 12.1%p 상승함
- '22년 사천시의 세대구성은 1인가구 형태가 36.3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2세대 가구, 1세대 가구, 3세대 이상 가구 순임
- 특히, 여성 가구주 중 1인가구 비율이 54.5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, '10년 대비 남성 1인가구 비율이 12.9%p 증가함

# 1. 인구 및 가족

## 저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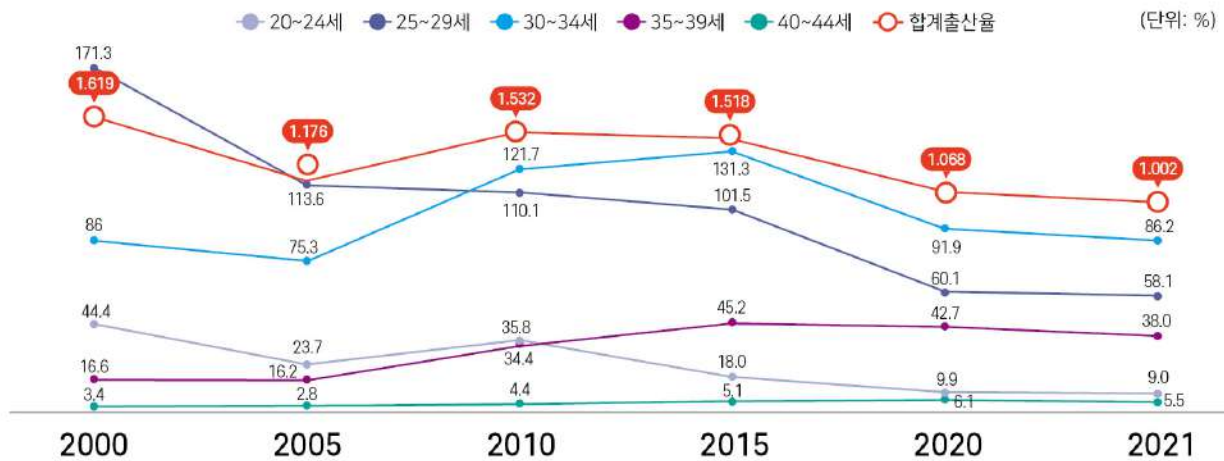
혼인건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 상승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

### 혼인과 초혼 연령(2000~2022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. <표 1-19>, <표 1-20>

### 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(2000~2021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. <표 1-1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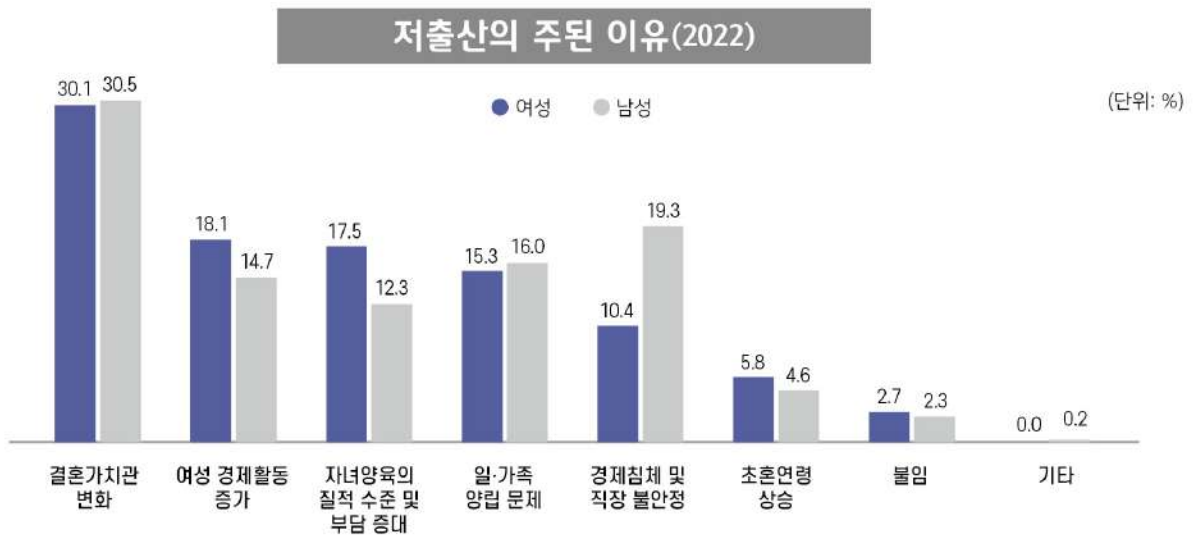
- '22년 혼인건수는 352건으로 '00년 796건에서 55.8% 감소함
-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31.3세, 남성 32.9세로 나타났고, '01년 대비 '22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크게 상승함
- '21년 합계출산율은 1.002명이며,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~34세 86.2명, 25~29세 58.1명, 35~39세 38.0세 순으로 나타남
- '00년 대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였고, 모의 연령대는 증가함

# 결혼에 대한 견해

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감소하였으며,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.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남녀 모두의 '결혼가치관 변화' 때문임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남사회조사」,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포털, <표 1-26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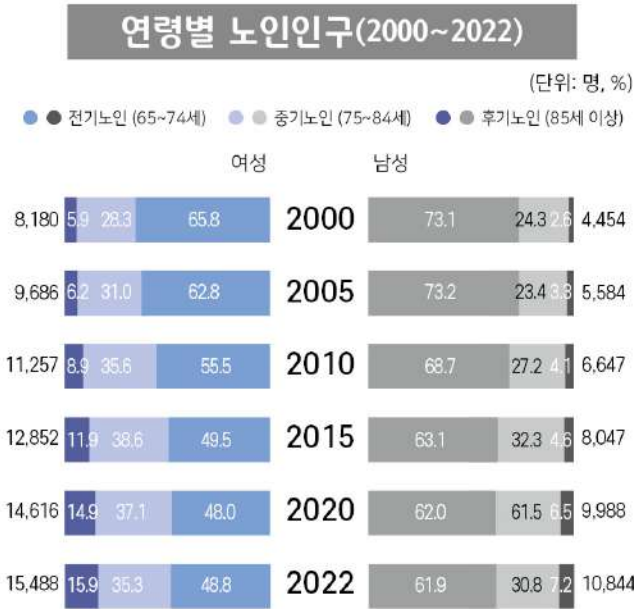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상남도, 「경남사회조사」,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포털, <표 1-29>

- '17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(반드시 해야한다 + 하는 것이 좋다)는 여성 63.0%, 남성 66.8% 였으나, '22년 여성 45.9%, 남성 56.5%로 감소함
- 결혼에 대해 '잘 모르겠다'라고 응답한 비율이 '17년 여성 1.2%, 남성 3.7%에서 '22년 여성 8.2%, 남성 6.8%로 상승하여 유보적 태도가 증가함
- '22년 저출산의 주된 이유로 여성과 남성 모두 '결혼가치관 변화'를 꼽았으며, 여성은 '여성 경제활동 증가', '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'를 주된 이유로 제시한 반면, 남성은 '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', '여성 경제활동 증가'를 주된 이유로 제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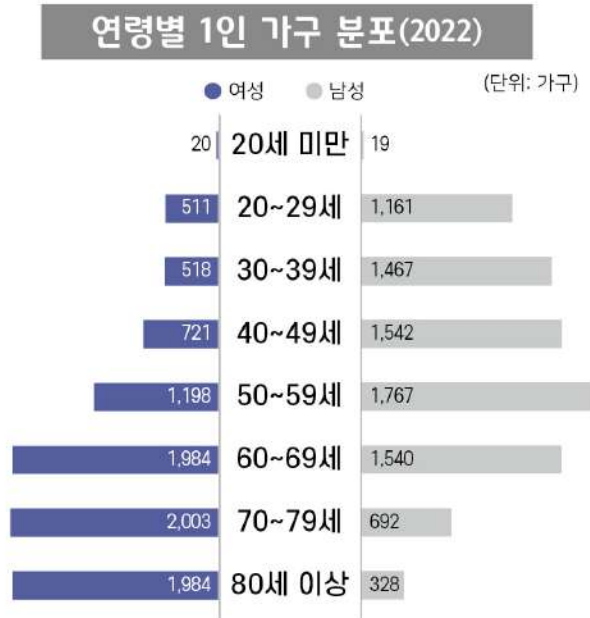
# 1. 인구 및 가족

## 초고령화 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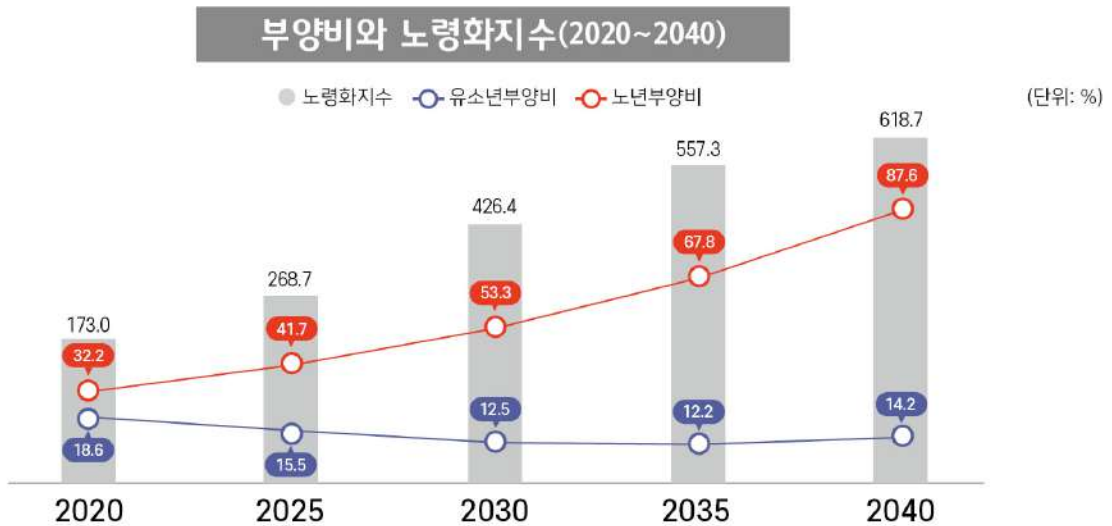
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으며, 특히 여성의 후기노인 비중과 노인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나타남

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, KOSIS, <표 1-24>



자료 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, <표 1-16>



자료 : 경상남도, 「시군별 장래인구추계」, 경상남도 홈페이지, <표 1-2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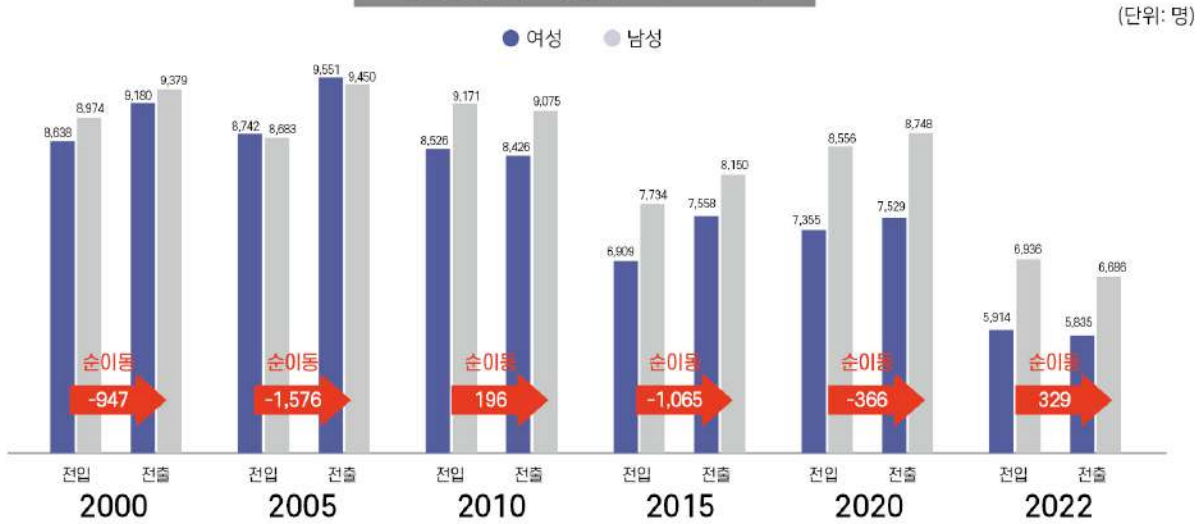
- '22년 기준 여성의 노인인구는 전기노인 48.8%, 중기노인 35.3%, 후기노인 15.9%로 남성 전기노인 61.9%, 중기노인 30.8%, 후기노인 7.2%에 비해 후기노인의 비중이 현저히 크게 나타남
- '20년 총부양비는 50.8%에서 2040년 101.8%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노령화지수도 '20년 173.0에서 '40년 618.7로 약 2.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
- '22년 기준 여성의 1인 가구 분포는 70~79세가 22.4%로 가장 많고, 80세 이상 22.2%, 60~69세 22.2% 순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67.0%를 차지함
- 반면 남성의 경우 1인 가구 중 50~59세가 20.7%로 가장 많고, 40~49세 18.1%, 60~69세 18.1% 순으로 나타나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게 나타남



# 인구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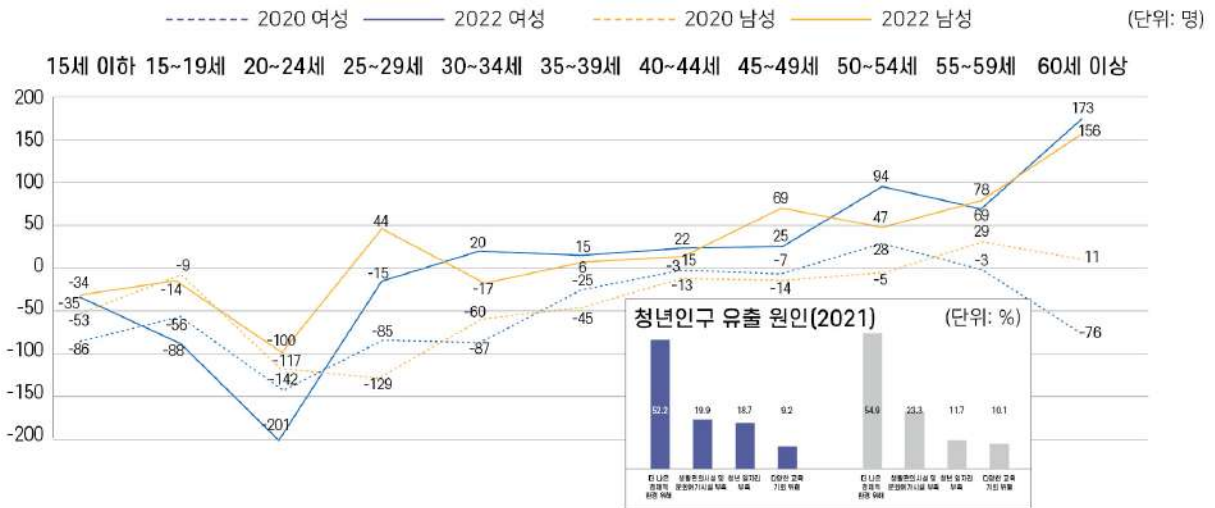
지난 20년간 인구유출이 이루어졌으나 '22년 순이동 인구가 증가함. 반면, 24세 이하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이루어짐  
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으며, 특히 여성의 후기노인 비중과 노인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나타남

## 성별 인구이동(2000~2022)



자료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, KOSIS, <표 1-4>

## 연령별 순이동 인구(2020, 2022)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, <표 1-5>, <표 1-6>

- '22년 총전입인구 12,850명(여성 46.0%, 남성 54.0%), 총전출인구 12,521명(여성 46.6%, 남성 53.4%), 순이동인구 329명(여성 24.0%, 남성 76.0%)으로 나타남
- 지난 20년간 '10년을 제외하고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게 나타나 인구유출이 지속되었으나, '22년 순이동인구가 329명으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짐
- '22년 사천시의 순이동 인구 증가는 35세 이상 인구에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이며, 인구유출이 가장 많이 나타난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20~24세로 확인됨
- 특히, 34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인구유출 규모가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남